

만경대의 진달래

김 경 만

해마다 찾아오는 만경대였건만 올해의 봄에 만경대를 찾는 나의 마음은 류달리 즐거웠다. 한것은 꿈많은 고급중학교시절을 마치고 사회진출을 앞둔 동창생들과 마지막으로 찾는 만경대에서의 하루였기때문이라.

일만경치가 모여 그 이름도 태여났다는 만경대의 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목란꽃, 나리꽃, 진달래...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온갖 새들이 즐겁게 노래부르는 만경대를 혁명의 성지로 심장속에 간직하고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 얼마나 큰것인가.

만경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오늘은 별로 소중히 안겨온다.

우리 누리는 행복이 바로 여기 만경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성지에서 설레는 나무잎 하나도, 풀잎 하나도 스쳐보낼수 없는 우리 마음이다.

이제 머지않아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땅 머나먼 곳 그 어디에 가도 소중히 안고갈 만경대를 가슴속에 새기는데 봄바람에 살랑이는 진달래가 류달리 나의 눈길을 끌었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 진달래, 맑고 푸른 하늘을 물들이는 붉고붉은 빛발은 불길이런듯 나의 마음도 뜨겁게 덥혀주었다.

어느덧 나의 가슴에서는 어릴적부터 마음속깊이 새겨져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부드러운 선율이 흘렀다.

...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설한풍 몰아치는 백두의 눈바람속에서 우리 수령님 한순간도 잊지 못하시던 고향 만경대, 행군의 휴식참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고향의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그려보신 만경대의 봄, 그것이 바로 저 진달래가 아니었던가.

하기에 조국진군의 뜻깊은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드리시는 진달래의 그윽한 향기를 맡으시며 조선의 진달래는 불

수록 아름답다고 그리고도 뜨겁게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그렇다. 진달래는 5천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었고 찬서리를 이겨내고 제일먼저 꽃망울을 터치는 강의하고 억세인 조선의 기상이고 정신이었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께서서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조선의 기상, 조선의 정신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실 확고한 결심을 더 굳게 다지시었다.

아, 진달래속에 어려오는 김정숙어머님의 환하신 그 영상.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라고, 우리모두 장군님의 해발이 되자고 하시며 수령결사옹위의 빛발로 한생을 빛내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고향 오산덕의 백살구꽃과 함께 만경대의 진달래를 늘 가슴속에 안고사신 김정숙어머님.

하기에 어머님께서서 해방후 그리운 고향을 찾으신 길도 뒤로 미루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구상을 받드시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시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성새, 방패되어 결사옹호보위하시던 그날처럼 오늘도 만경대를 못 떠나시는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으로 안겨오는 진달래.

아, 만경대의 진달래, 조선의 진달래, 그것은 짓밟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민의 존엄을 저 하늘끝에 높이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업적을 잊지 못해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이며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마음의 고향으로 소중히 안고사는 우리 인민의 모습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항일의 불길만리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내 조국, 세상이 알지 못하는 류레없이 간고하고 어려운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지켜주신 내 조국을 기어이 수령님께서서 념원하시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지는 이 나라 인민의 뜨겁고도 열렬한 지향이고 넓이었다.

나도 이제 머지않아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끓는 사회로 나가게 된다. 내 조국 그 어디에 가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백두의 대업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한길에서 내 마음 언제나 진달래처럼 붉게 피리라, 만경대의 진달래처럼.